

# KIA 광도규 “‘쓸 만한 선수’ 되겠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 YouTube 일보

야구는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봄이 오면 야구가 시작되고, 여름에 활짝 피어나  
서 저녁 나절을 충만하게 채운다.  
그리고 찬 바람 속에 비가 내릴 때 낙엽이 떨어져  
내리듯 쓸쓸하게 떠나간다.  
우리는 야구를 보며 흐르는 세월을 잠시 잊기도  
하고, 찬란한 햇살의 기억을 잠시 불잡아둔다.  
그러나 저무는 하루가 가장 간절해 질 때쯤 노을  
이 지듯 야구도 그렇게 멈춘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광도규는 고통스러웠던  
재활과정을 이야기하면서 MLB 커미셔너 A. 바틀  
렛 지아마티가 남긴 에세이를 읽었다.

“중학교 때 등경했던 선수를 영상까지 찾아보고  
영상을 많이 봤다. 보스턴 레드삭스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목표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과정 속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동  
기 부여가 됐다”며 웃은 광도규는 일본 아마미오시  
마 캠프에서 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  
다.

KIA는 아마미 야구장에서 2026시즌을 준비하  
고 있다. 지난해 5월 팔꿈치 수술을 했던 광도규도

재활의 긴 터널 지나 캠프 합류  
100% 피칭 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펜에서 공 던지며 상태 점검  
“긍정의 마음으로 완벽한 복귀”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동료들과 함께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아직 100%로 피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불펜에서 50구 이상을 던지면서 복귀를 위해 점  
점 단계를 옮기고 있다.

광도규는 “캠프 참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구단  
에서 배려해 주셨다. 바로 시즌에 합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따뜻  
한 곳에서 공 던지고 있다”며 “(수술 부위의) 어색  
함이나 그런 것은 없다. 캠프 기간에는 피칭에서 퍼  
센트만 올리는 식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다. 강도를  
올리고 있다. 빨리하려고 하면 코치님들이 많이 말  
려주신다. 시합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체계적으  
로 잘 잡아주시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  
다.

코칭스태프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  
쟁 분위기 속 마음이 금하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광도규는 “피칭할 때 옆에서 다른 선수들은 빽빽  
공을 때리는 데 나는 130km에 만족해야 한다. 프로  
선수 기준으로 광도규를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  
고 마음에 안들지만 올라가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단계는 다하고 있  
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광도규는 2024 한국시리즈에서 회제의 ‘이의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는 등 남다른 멘탈과 실력을  
보여줬다. 화려한 무대에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  
했던 만큼 다음 해 찾아온 부상이라는 어둠은 더 짙  
게 느껴졌다.

광도규는 “LA 캠프에서부터 안 좋았던 것 같다.  
전혀 몰랐다. 나도 못 느꼈는데 코치진도 알 수 없  
고, 하나 고치면 하나가 어긋나고, 고치면 다른 게  
어긋났다. 시합에서 안 되니까 답답해하다가 팔까  
지나갔다”며 “재활을 하면서 피폐해진 날도 하루이  
틀 있었는데 공 던지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다. 멘  
탈도 잡혔다. 과정에 집중하는 게 많이 바뀐 것 같  
다. 짜증 내지 않고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긴 여  
정일 테니까 긍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  
다.

긴 어둠을 지나 복귀를 위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든 광도규는 긍정의 마음으로 ‘완벽한 복귀’를 목표  
로 달릴 생각이다.

광도규는 “쓸 만한 놈이어야 한다”며 “돌아왔는  
데 ‘팔 아파서 돌아왔으니까 몇 번 기회 더 주자’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부터 ‘쓸 만한 애였지’로 회상되  
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쓸 만한 선수로 돌아오겠  
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좌완 광도규(왼쪽)이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 의해 넘어진 김길리가 최민정과 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  
계올림픽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차준환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쇼트트랙,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혼성 2000m 계주 불운 끝 노메달…내일 새벽 여 500m·남 1000m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과거는 깨끗이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첫 메  
달 레이스인 혼성 2000m 계주에서 불운 끝에 메달  
획득에 실패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메달 도전  
에 나선다.

윤성명 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10일 여자 500m 예선에 출전한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 남  
자 1,000m 예선에 나선 임종언(고양시청), 황대  
현(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모두 준준결승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이중 남자 1000m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전략 종  
목으로, 중장거리 강점을 살려 금메달 획득에 도전  
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팀 에이스 임종언이  
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임종언은 경  
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10일 남자 1,000m

예선과 혼성 2,000m 계주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  
로 주변의 우려를 불식했다.

임종언은 신인 선수가 흔히 범하기 쉬운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1,000m 예선에서 루가 스페케나우세르(이탈리  
아)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치다가 막판 1위를 내  
줬으나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레이스를 택해 2위로  
준준결승에 안착했다.

이날 많은 선수가 무른 빙질 탓에 넘어지고 실수  
했으나 임종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경기를 이어  
갔다.

평소 과격한 몸싸움을 펼치는 베데랑 황대현(강  
원도청)도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레  
이스를 치렀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은 신동민(고  
려대)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경기력을 보였다.

또한 ‘세계 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가 이날  
만큼은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  
투어에서 보였던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지 못한  
것도 한국 대표팀에 호재다.

단지누는 혼성 2,000m 계주에서 별다른 활약 없  
이 이탈리아에 금메달을 내줬다.

여자 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도 기대를 모은다.

단거리 종목인 여자 500m는 한국 대표팀의 취약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내지 못  
했다.

그러나 최민정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타트 등  
단거리 훈련에 집중했고,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성과를 냈다.

최민정은 혼성 2,000m 계주 준준결승과 준결  
승, 파이널 B에서 모두 1번 주자를 도맡아 대표팀을  
이끌었다.

번수는 최민정과 함께 여자 대표팀을 이끄는 김  
길리의 부상 상태다.

김길리는 혼성 2,000m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  
진 미국 국가대표 카린 스토더드와 충돌하며 오  
른팔을 다쳤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큰 부상은 아니지만 훈  
련과 경기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대표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팀 김민정 코치는 “(여자 대표팀) 막내인  
(김)길리가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며 “주변의 언  
니, 오빠 선수들이 길리를 잘 다독이고 있다”고 전  
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일 공식 훈련과 휴식으로  
재정비한 뒤 13일 다시 출격한다.

/연합뉴스

## 피겨 차준환 새 역사 쓸까

올림픽 남자 싱글 쇼트 6위…14일 한국 남자 사상 첫 메달 도전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  
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 스  
케이팅에 진출했다.

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  
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  
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  
했다.

1위는 108.16점을 받은 ‘퀴드킹’ 일리야 말리  
닌(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  
(103.07점), 프랑스 아당 샤오잉파(102.55점)  
가 뒤를 이었다.

차준환과 3위 샤오잉파의 점수 차는 9.83점으  
로 작지 않지만, 역전 메달 획득 가능성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전체 1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데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  
춰 첫 과제인 고난도 퀴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해내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얻었다.

이어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했  
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  
부 연기를 마쳤다.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  
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  
우)이 나와 GOE 0.69점 감점을 받은 것은 아쉬  
웠다.

그러나 체인지 풋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  
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  
을 아름답게 연기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  
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  
한다.

그는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  
에서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  
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  
쳤으나 이날 경기에서 부진을 만회했다.

함께 출전한 김현경(고려대)은 TES 37.92  
점, PCS 32.39점, 감점 1점, 합계 69.30점을 받  
아 26위에 머물면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  
리 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이날 1위에 오른 말리닌은 4회전 점프 2개와  
트리플 악셀로 많은 점수를 쌓아 담았고, 팀 이벤  
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백풀립’을 다시 펼치며 관  
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메달 색이 결정되는 프리 스케이팅은 1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